

# iM뱅크, 수도권 진출 속도낸다 서울·동탄에 기업금융 거점 마련

이달 중 가산·화성에 점포 출점  
벤처·디지털 기업 중심 서비스

3년내 전국 14개 거점 점포 목표  
지역별 산업특성 맞춤 전략 추진

올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가 수도권 진출에 속도를 낸다. iM뱅크는 12월 중 서울·화성에 각각 2·3호 역외지점을 출점하고,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춘 전략을 통해 영업망 확대에 나섰다. 기업금융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오는 19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가산디지털금융센터'를 개점한다. 이는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이후 강원 원주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거점 점포다. 이어 이달 말에는 화성 동탄 지역에 '동탄금융센터'를 개점한다.

iM뱅크가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만큼 영업망 확대를 꾀하고 있다. 타 은행들이 판관비 절감을 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며 기존 점포를 통폐합하는 추세인 만큼, 신규 점포를 연달아 출점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iM뱅크는 신규 출점하는 점포들을 지역별 환경에 특화된 기업금융 전문 점포로 운영하는 한편, 1인 지점장인 '기업금융전문가(PRM)'의 활동 거점으로도 활용해 영업점 당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iM뱅크의 1호 거점 점포는 강원 원주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 기존 은행 점포와는 달리 모든 창구를 개별 상



대구 iM뱅크 제1본점.

iM뱅크

당실 형태로 운영해 고객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했고, 기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 중소기업 고객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iM뱅크의 2호 거점 점포인 가산디지털금융센터는 구로·가산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에서 개점한다. 7000여개에 달하는 벤처 기업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디지털·벤처 기업 금융 특화 점포가 될 전망이다.

가산디지털단지 내 벤처 기업에는 IT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최근 판테크 육성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는 DGB금융 및 iM뱅크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이어 3호 거점 점포인 동탄금융센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한 곳인 화성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다. 동탄2신도시 인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 화성 지역 내 기업 단지는 22곳에 달하며, 입점 기업도 2만7000개 이상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아동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기업금융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소매금융 확대도 함께 겨냥하는 모습이다.

iM뱅크는 향후 3년 내 전국에 총 14개 거점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iM뱅크 영업점이 없었던 충청·수도권에 집중해 우선 출점할 예정이며, 전라·부울경 지역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을 진행하는 등 향후 출점을 준비하고 있다.

iM뱅크는 거점 점포 설치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각종 마케팅을 통한 비대면 금융·소매금융 확대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손대권 iM뱅크 개인고객그룹 상무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로운 지점 개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브랜드, 협력업체와 마케팅을 진행해 전국 고객들과 다방면으로 만나고자 한다"라며 "많은 혜택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매금융 점유율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2금융권, 유동성 점검 분주 뱅크런 우려 모니터링 강화

'비상계엄' 파장

주요임원 소집해 시장 동향 분석  
고정자산 이탈·역머니부브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금융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코인과 환율 등 자산이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모두 유동성 점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주요 책임자와 임원들을 소집했다. 유동성 점검과 함께 비상계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뱅크런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회는 유동성 점검을 이어간 결과 자금 동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일선 금고에도 유동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신협중앙회 또한 비상계엄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유동성 점검 수준을 상향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자금이동 징후는 없다. 주력 사업을 예대업무로 한정하는 만큼 은행이나 증권사 대비 자금이동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다. 이어 수협중앙회 또한 유동성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사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비상계엄 여파에 유동성 관리를 강화했다. SBI저축은행은 임원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이 미칠 시장 여파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 업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신 잔액은 모두 일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아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도 영업개시 후 가장 먼저 유동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주요 임원을 소집해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대면·비대면 창구 모두 괄목할 징후는 없다는 판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점검하고 거시경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보다 수준을 강화했다"라고 했다.

2금융권 전반에 걸쳐 유동성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전히 고정자산 이탈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2금융권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역머니부브'다. 역머니부브란 경제 불황에 예금 등의 안전자산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과 국내증시, 코인 등 자본시장이 이동되면서 예금인출시나 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산 보관을 목적으로 고정자금을 예치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재테크를 위해 개설하기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여파가 회복되는 시기 저축은행의 고정자산이 증권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우려다.

밤사이 위기를 넘긴 만큼 유동성 악화 우려 가능성은 낮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유동성 비율은 평균 135.84%다. 법정기준 100% 대비 35.84%포인트(p)를 초과했다. 기초체력을 높여 놓은 만큼 일시적인 자금 이탈을 견딜 수 있다 분석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카드사-PG사, 영업구역 두고 갈등

PG협회, 카드사 직승인 계약 비판  
카드사, 수수료 절감·효율성 강조  
당국, 법령 해석으로 중재 가능성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가 영업구역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간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교통 정리가 요구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PG협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승인 계약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PG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카드사가 결제 시장의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PG사와 밴(VAN)사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갑질'이란 주장이다.

PG협회는 비씨카드의 영업에 주목했다. 비씨카드가 NH농협카드 및 주요 은행계열 카드사 대상 밴(VAN) 직매입 영업을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PG협회는 지급결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자체적인 투자를 계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비씨카드는 직접 계약이 문제가 없

다고 반론했다. PG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가맹점과 직접 계약은 카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며 가맹점의 연결 요청에 응한 것이라 설명했다.

카드업계 또한 PG협회의 성명서를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카드사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PG협회가 관련 업계를 '골목상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일부 PG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대비 높은 수익고를 올리고 있다는 것.

비씨카드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각 카드사는 결제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당사가 제공하는 '거래 중계 서비스'는 카드 결제 과정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업계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계약하는 '밴리스(VANless)'가 활성화하면 영세 벤 사업장 400여곳이 사라질 것이

란 우려다. 아울러 카드사가 신용 등을 문제로 직접 계약을 거절했던 가맹점에 관한 담보를 PG업계가 도맡았던 만큼 직접 계약이 상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와 밴사는 결국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을'의 위치에 있다"며 "향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 30년간 가맹점을 모집하고 책임져온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임의로 법정 수수료를 낮추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가 가맹점 간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임의로 수수료를 낮춘 사실이 전무하다"며 "PG협회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은 지난 2016년으로 카드업계는 보다 최근 관련 내용을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새 집,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 증가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非 건설사보다 두 배 높아

올해 10대 건설사가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대 건설사(코오시엠포함)가 공급한 단지들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7.21대 1을 기록했다. 비(非)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 8.67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이 1순위 평균 228.49대 1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HDC현대산업개발 27.2대 1, 포스코이앤씨 23.79대 1 등이 이었다.

청약 접수 건수도 희비가 엇갈렸다. 10대 건설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97만8504건이며, 비 10대 건설사 아파트의 경우 50만2142건으로 집계됐다. 일반 공급량이 10대 건설사가 5만6855가구, 비 10대 건설사가 5만792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데 반해 청약 건수는 2배에 가까이 차이가 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0대, 비 10대 건설사의 공급량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안하면 최근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짙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말에도 10대 건설사 아파트 물량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중으로도 10대 건설사의 분양이 대거 예정되어 있다.

삼성물산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원에 건립되는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 4개 동 전용 84~110㎡ 347가구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